

완도군 가격 폭락 매생이 소비 촉진 나섰다

공직자 사주기 운동·이마트 147개 매장 직거래 판매장
가공제품 개발·동결건조 시스템·보관 시설 구축도 나서

겨울철 별미 매생이 가격 하락<광주일보 1월 17일 12면>과 관련, 완도군이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완도군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매생이 <사진> 사주기 운동에 나서는 한편, 대형 마트에 직거래 판매장을 마련해 소비 판매 촉진에 공을 쏟기로 했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매생이 가격 하락에 따라 공직자 매생이 사주기 운동과 대형 마트 직거래 판매, 동결건조시설 건립 등의 장·단기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완도에서는 매생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산지가격이 전년도(제기당 2500~3000

원)의 3분의 1 수준인 1000원~1300원으로 떨어지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완도군은 지역 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매생이 사주기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생이 사주기 운동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5제기(제기당 380g) 1만원, 10제기에 2만원하는 매생이를 구입해 어민들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어른 주먹 크기의 매생이 한 덩이를 1제기라 부르는데, 1제기는 국으로 끓일 경우 3~4인분에 해당한다는, 380g 정도의 양



이다.
완도군은 완도매생이생산자협회와 오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국내 최대 유통 업체인 이마트 147개 전국 매장을 통해 매생이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고 소비 촉진에 나선다.
군은 행사 기간 1만 상자(1상자 10제기)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완도군은 이외 타 지역 지인, 재경향우회 등을 대상으로 판매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완도군은 동결건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매생이 가공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과 급냉 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외 매생이 재기당 중량을 정량화 하는 방안과 적정 생산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식여장 정비 계획도 수립, 추진키로 했다.
한겨울 매서운 바닷바람을 뚫고 채취하는 매생이는 겨울을 대표하는 별미로 특히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매생이 효능을 알리고 연계 상품을 개발해 매생이 상품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설 명절 지역 특산물 판매 총력전

해남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수산소품물 ‘해남미소’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산물 판매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군은 우선, 설(2월 16일) 명절을 앞두고 ‘해남미소’ 인지도를 높여 지역 특산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물차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선다.
해남군은 올해 3000만원을 들여 지역 농·특산물을 운송하는 4.5t 이상 화물차 <사진> 23대에 ‘해남군 지역소품물 해남미소’라는 홍보 문구를 부착해 운영도 록 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을 다니는 농·특산물 차량에 홍보광고를 달아 소비자들에게 해남 지역 소품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특산물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겠

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은 또 다음달 13일까지 ‘설 명절 농·수·특산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소품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남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선물 목록 8000장을 발송했다.
집중 홍보기간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최다왕(최다 구매량 기준)’, ‘최대왕(최고 구매액 기준)’, 행운상, VIP 고객 등 132명을 선정, 최고 20만원 상당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해남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소비자들이 해남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군 지역 소품물에 대한 홍보와 판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해남군이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우 농작업을 대신해 주게 된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 등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의 1일 지원액은 6만원으로, 80%는 군에서 지원한다. 본인 부담은 20%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대파 농민까지 확대

금액도 150만원까지 인상

진도군이 농업인 월급제 시행 대상과 월급 금액을 확대·인상한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벼 외에 대파 재배 농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월별 지급 금액도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3개 지역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다음달까지 신청받아, 4~10월까지 7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의 농업 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민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눠 지급하고, 군은 지역 농협에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농업 부담을 없앴다.
진도군에서는 지난해 벼 재배 농민 230명이 최소 30만~1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진도군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지역농협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군행복복지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

1인 1구좌 갖기 운동

민선 6기 신우철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이 설립 3년을 맞아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복지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펼친다.
행복복지기금은 완도군 출생금 50억원과 군민, 공직자, 출향인, 사회단체, 각 마을 등에서 기탁한 기부금 15억 원 등 65억원이 조성돼 있다. 완도군행복복지재단은 오는 2026년까지 45억원을 추가로 확보,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복지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복지재단은 이를 위해 군 사회·단체 회원과 읍·면 자원봉사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천사 1인 1구좌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급여 끝전 모으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 행복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와 활동 사항 등을 알려 기부분화를 확산하는데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행복복지재단에 기탁된 기부금은 관내 비수급 빈곤층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사용된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읍 가로등에 설치된 그림자 조명. 해남군은 밤길, 밝은 조명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자 확대 설치키로 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그림자 조명 가로등’ 13개 읍·면 추가 설치

경관 개선·범죄 예방 효과

올 설치 예산 4000만원 편성

해남군이 가로등을 이용한 일명 ‘그림자 조명’을 확대, 설치한다. 13개 읍·면에 ‘조명’을 설치해 경관 개선 효과와 함께 정책 홍보, 이미지 개선, 범죄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읍내 5곳에 설치했던 그림자 조명을 올해 13개 읍·면에도 추가키로 하고 관련 예산

4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1500만원을 들여 해남삼지공원, 문예회관, 우של체육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5곳 가로등에 그림자 조명을 설치했다.
‘그림자 조명’은 조명과 그림자 기법을 적용한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다양한 색감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담은 특수필름을 가로등에 부착한 뒤 이를 지면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두운 밤길, 가로등 조명이 밝아지면서 주민들을 위한 응원·격려·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커지도록 한 것으로, 범죄 예방과 함께 활기찬 지역 공동체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게 해남군 설명이다.
해남군은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희망 메시지 등을 신청받아 설치하는 데 반영키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경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투자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매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팻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